

'손' 빈 한국, 황의조 '발' 믿는다

(홍민)

아시안컵 오늘밤 10시30분 필리핀과 조별리그 1차전

역대 7번 대결 무실점 7승... 29년만의 재대결 황의조 원톱 출격... 좌우 날개에 황희찬·이재성

'손흥민 초반 공백? 황의조의 발끝을 믿어라'
59년 만에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왕좌 탈환을 향한 태극전사들의 뜨거운 도전이 마침내 막을 올린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7일 오후 10시 30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알 막툼 스타디움에서 필리핀과 2019 아시안컵 조별리그 C조 1차전을 펼친다.
한국은 역대 아시안컵에서 1956년 1회 대회와 1960년 2회 대회 연속 우승 이후 챔피언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 못했다.
직전 2015년 호주 대회에서는 결승까지 올랐지만 연장 승부 끝에 호주에 밀려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4년 전 준우승의 아쉬움을 가슴에 간직한 태극전사들은 59년만의 아시안컵 우승을 목표로 구슬땀을 흘렸고, 아름다운 결실을 위한 대장정을 시작한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53위인 한국의 조별

리그 1차전 상대는 필리핀(116위)이다.
한국은 필리핀과 1956년부터 1980년까지 7차례 대결해 '무실점 7연승'을 거뒀다. 7연승 동안 무려 36골을 넣었을 정도로 일방적인 승리였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한국은 필리핀과 무려 29년 만에 재대결할 뿐만 아니라 경기 결과가 대회 초반 팀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필리핀은 비록 FIFA 랭킹이 낮지만 '명장' 스펀 에란 에릭슨 감독을 영입했고, 유럽리그 경험이 많은 선수들 위주로 팀을 꾸려 동남아시아 축구의 자존심을 살리겠다는 각오다.
필리핀은 독일 분데스리가 호펜하임,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에서 활약한 독일 20세 이하 축구 대표팀 출신 미드필더 슈테판 슈뢰커가 팀의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고 있어 태극전사가 신경 써야 할 선수다.
한국은 '핵심 공격수' 손흥민(토트넘)이 소속팀

아시안컵 필리핀전 예상 선발

7일 오후 10시 30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알 막툼 스타디움



4-2-3-1

연합뉴스

일정으로 조별리그 1, 2차전에 나설 수 없는 게 아쉽지만 조별리그 팀들을 압도할 수 있는 공격수들이 수도득하다.
무엇보다 지난해 아시안게임 득점왕(9골) 황의

조(김바 오사카가)가 대표적이다. 황의조는 지난해 아시안게임 득점왕의 기운을 아시안컵까지 이어가겠다는 각오가 남다르다.
벤투 감독은 필리핀을 상대로 주 전술인 4-2-3-1 전술을 가동할 전망이다.
원톱 스트라이커는 황의조가 맡고 세 번째 아시안컵을 맞는 구자철(아우쿠스부르크)이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선다.
중앙 미드필더는 정우영(알사드)-기성용(뉴캐슬) 듀오가 나서는 가운데 중앙 수비는 김영권(광저우)-김민재(전북) 조합이 맡고, 좌우 풀백은 김진수와 이용(이상 전북)이 출격할 전망이다. 골키퍼는 김승규(빛셀 고베)가 예상된다.
벤투 감독의 마지막 고민은 측면 공격 자원이다. 손흥민이 빠진 왼쪽 날개 자리를 놓고 그동안 황희찬(함부르크), 이재성(홀스타인 쾰), 이창용(보훝)을 놓고 저울질했다.
지난 1일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는 '변형 스리백'을 앞세워 황희찬에게 먼저 선발 기회를 줬고, 이재성이 교대로 벤투 감독의 검증을 받았다. 이창용 역시 좌우 측면에서 고루 훈련하며 검증을 받았다.
필리핀전에서는 황희찬과 이재성이 좌우 날개로 먼저 출격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이창용 역시 언제든지 호출될 수 있다. /연합뉴스



황의조

김남일, 코치로 15년만에 친정 전남 복귀

코칭 스태프 구성 완료... 선수 영입작업 속도

구단 첫 외국인 감독으로 승격에 도전하는 전남 드래곤즈가 코칭 스태프 구성을 완료했다. 선수 영입 작업에도 속도가 붙었다.
최근 파비아노 수아레스 감독을 선임 감독으로 선임한 전남은 '2002 월드컵 주역' 김남일 코치와 함께 전경준, 신범철, 한동훈 코치로 2019시즌 코칭스태프를 구성했다.
2000년 전남에서 프로에 데뷔한 김남일 코치는 15년 만에 친정으로 돌아온다. 김남일 코치는 2017년 장주 수닝에서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 2017년부터 A대표팀 코치를 맡아 2018 러시아 월드컵을 경험했다.

2007년 싱가포르 슈퍼레즈에서 수석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전경준 코치는 2010년 KFA 전임지도자를 하며 유소년팀 감독으로 두 번의 우승을 이끌었고, 2018년에는 A대표팀 수석코치로서 러시아 월드컵을 경험했다.
1993년 부산에서 데뷔해 2004년 인천에서 은퇴한 신범철 코치는 2005년 인천에서 골키퍼 코치로 지도자로 나선 뒤, 최근에는 장주 수닝에서 코치 생활을 했다. 한동훈 코치는 광양제철고 코치에서 프로로 승격되었다.



전남은 유스 출신 3인방 등 새로운 얼굴도 발표했다.
전남은 6일 우선 지명 선수 중 중앙대 추정호, 한남대 김진성, 광양제철고 김민혁을 영입했다.
2018 U-23 대표 및 2018 대학선발 대표를 지낸 추정호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패시력이 뛰어나며 득점력을 갖췄다. 2018 대학선발 대

표와 2016 U-20 대표를 거친 김진성은 중앙수비수로 적극적인 밀착 수비와 활동량을 바탕으로 한 빌드업 능력이 뛰어나다.
좌측 수비수인 김민혁은 2016 U-17 대표로 아시안스권대회에 참가했고, 적극적인 오버래프와 대인마크, 크로싱과 순간 돌파력이 좋은 차세대 유망주이다.
전남은 자유 선발 신인 선수로 안동과학대 좌측 공격수 조윤형도 영입했다. 2018년 아시아대학 축구대회에서 도움상을 수상한 조윤형은 빠른 발과 개인기를 이용한 측면 돌파와 크로싱이 뛰어나다.
전남은 또 지난 시즌 대전 시티즌의 후반기 반동을 이끈 골키퍼 박준혁도 영입했다.
2010년 경남을 통해 프로에 데뷔한 박준혁은 9시즌 동안 181경기에 출전했으며, 지난 시즌 영점대 실점률(경기당 0.94골)을 기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FC 전력 과학적 관리... 임진우·박선주 영입 '수비 강화'

광주 스포츠과학센터 방문 근력 등 전문체력 13종 테스트 을 4차례 계획...맞춤 훈련 진행

광주 FC가 승격 목표를 위해 과학의 힘을 더한다.
2018년 가을 대전 시티즌과의 준플레이오프 0-1 패배로 승격 도전을 멈췄던 광주는 지난 2일 목포 축구센터에 소집돼 새로운 시즌 준비에 돌입했다. 올 시즌 목표는 당연히 승격이다.
7일 광양 전지훈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즌 준비에 나서게 되는 선수들은 지난 4일 특별한 체력 테스트로 위급을 했다.
이날 광주 선수들은 광주시체육회 1층 광주 스포츠과학센터를 찾아 세밀하게 체력을 측정했다. 동료들의 응원 속에 팔굽혀 펴기를 하고, 빠르게 사이드 스텝을 밟고, 호흡가스대사분석기를 끼고 러닝을 하는 등 선수들은 고치성, 근력, 민첩성 등 기초체력 10종과 무산소성파워, 유연성, 협응성, 등속성파워 등 전문체력 13종에 대한 검사를 했다.
광주는 올 시즌 광주 스포츠과학센터의 도움을 받아 총 4차례 체력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학적으로 체력 측정과 평가가 이뤄지면서 광주는 이를 바탕으로 시즌 동안의 선수들의 전제적인 몸 상태를 살펴보고 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 또 측정 결과에 따라 맞춤 훈련을 하면서 훈련의 효율성도 최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년과 다른 체계적인 체력 테스트는 새 시즌을 앞둔 선수들에게 긴장감을 부여했다.
한 달여의 짧은 휴식기를 보내고 복귀한 여봉훈은 "쉬는 기간 가족들과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만나고 운동도 했다"며 "체력테스트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됐던 것 같다"고 웃었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FC의 조주영(왼쪽)이 지난 4일 광주 서구 염주종합체육관 내 스포츠과학센터에서 배근력을 측정하고 있다.

임, 공중볼 장악·볼처리 안정적 박, 원발 크로스·연계플레이 강점

광주 FC가 J2리그인 진우와 7년 차 베테랑 박선주로 수비를 강화했다.
광주는 6일 임진우, 박선주
그 로아소 쿠마모토에서 썬 임진우를 신인자유선발로 영입했다.
187cm·80kg의 탄탄한 체격의 임진우는 공중볼 장악과 안정적인 볼처리가 강점인 중앙수비수다. 큰 체격에도 민첩성이 뛰어나 저돌적인 움직임으로 상대 공격을 저지한다.
2016년 전국 대학리그를 제패한 영남대의 황금 멤버인 임진우는 일본 J2리그 로아소 쿠마모토를 통해 프로에 데뷔했지만, 햄스트링과 무릎 인대 부상으로 2시즌 동안 9경기 출장에 그쳤다.
임진우는 "의지와 의욕만 앞서다 보니 부상을 얻어 내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기회를 준 광주에 감사하다. 항상 자신감과 파이팅 넘치는 모습으로 팀 승리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는 앞서 지난 3일에는 포항 스틸러스와 강원 FC서 활약한 원톱 측면 수비수 박선주도 새 식구로 맞이했다.
청소년 대표 출신인 박선주(175cm·62kg)는 원발 크로스가 좋고 연계플레이에 강하다. 특히 빠른 발을 무기로 오버래프에 능하고 투쟁심이 뛰어나 팀에 헌신적이라는 평가다.
2013년 포항에서 데뷔하면서 당시 코치였던 박진섭 광주 감독과 인연을 맺은 박선주는 데뷔 시즌 황금 날개로 불리며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통산 68경기 1골 3도움을 기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임진우 박선주